

2025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모두 말씀

2025. 4. 25.(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교육협의회 위원님들과

금융교육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그간 추진 경과

내년부터 고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의 하나로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오늘 금융교육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과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식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들은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높이고,
금융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당국을 비롯하여
교사, 교수 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분들은
학교 교육내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난해 12월에
'금융과목 설명회'에서 보여주신
교사와 학교 관계자분들의
'관심'과 '열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향후 정책 추진 방향

그러나,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올해 9~10월까지 전국 학교 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금융과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생생(生生)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일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금융권 차원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사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학생 대상 금융교육과 같이
학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이 초·중·고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동아리 지원 등 실용적인 금융교육 실시

또한, 학생들이 금융분야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금융투자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교육부·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금융권간 협업(協業)을 강화하여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사, 학생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금융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OECD,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학교 교육 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 * OECD 조사결과, 전세계 40개국 이상이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도입중
(美) 州별로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금융교육 이수를 의무화(‘25년 총 27개州)
(英) 중등 교과과정에서 금융교육 의무화 도입 → 별도의 교과목이 아닌 기존 교과
(수학, 시민교육 등) 내 통합하는 방식으로 범교과적 금융교육 채택

금융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
‘예기치 못한 재정적 충격’(unexpected shock)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청년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시스템의 혜택을 폭넓게 향유토록 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번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도입이
우리 금융교육의 토대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